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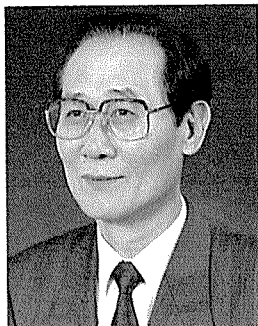
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새 기운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축복으로 내려  
지길 기원합니다.

해마다 맞는 신년은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다짐을 요구합니다만 건축인으로서 유달리 다사다난 했던 갑술년을 보내고 올해년을 맞는 감회는 그 어느 해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새로운 변화의 문턱에서 대한건축사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첫 출발을 다짐하는 본인의 심정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숙연해지기 조차 합니다.

## 변화의 시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Our attitude to Changes and Reformations

金圭泰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전국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우리 건축계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대응논리 정립을 위한 개혁 욕구의 확산과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건설관련 대형사고로 인해 관련 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가는 가운데, 설계·감리 시장의 조기개방으로 예상되는 국내 업계의 어려움은 한층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우리의 지혜와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혹자들은 흔히 현시기를 변화의 시기라고 합니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찾아든 평화무드에 편승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정치·경제질서에서 탈피하여 세계화, 개방화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 몇년간의 변화 추이는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정책의 바로미터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이제 역사의 필연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벗어나려 할수록 낙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습을 답습한 안일주의,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계화·개방화를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우선 냉철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건축계에 내재해 있는 온갖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정비하는 일입니다. 이와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건축적 사고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전 건축사가 일반인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책이라고 봅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본인은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계사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 땅에 진정한 건축 토양을 일구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협회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계에 만연된 비생산, 비능률의 구습을 떨쳐버리고 세계화속의 한국건축의 도약을 위한 과감한 변혁을 하나 하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정책의 실현만이 진정으로 전회원을 위하고, 건축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며 재임기간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회원의 권익보호와 대변을 위한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의 체질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의 각 부문이 변신의 용트림을 하고 있는 이때에 협회의 운영체계의 의사결정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고로 제도개선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협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협회 운영은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에 건축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위해 질 높은 건축환경을 조성,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의식변화, 협회의 체질개선을 함께 이루어 시대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체제기반이 구축될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이 땅에 올바른 건축문화가 창달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과 화합을 반복하면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건축문화를 담당해 온 주체로서 건축사들이 이루어온 건축의 역사도 이러한 큰 흐름의 한 부분으로 스스로의 변화 동인을 가지며 지금껏 이어져 왔고,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있는 이 자리도 미래의 건축역사를 이루는 한 부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움직임 하나 하나가 모여 이 땅의 건축문화를 이루고, 이 땅의 건축역사를 일구어 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회원이 이 같이 투철한 직업관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신년의 아침 햇살은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에 한하여 희망으로 뿌려지리라 확신합니다. 전 회원이 심기일전 하여 새롭게 펼쳐진 미지의 을해년을 힘차게 달려갑시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길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을해년 아침에